

#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의 선호도와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추명희\* · 이정록\*\* · 김재철\*\*\*

본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변의 관광지에 관한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관광지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지역 주민들은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광편의시설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향일암, 거문도·백도, 오동도로 분석되었다. 방문빈도가 가장 높은 관광지는 여수 오동도를 비롯하여 선암사, 송광사, 홍국사, 향일암, 백운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해양형 관광지가 아닌 내륙의 산악형 관광지를 주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관광지 선호도에서는 봄에는 오동도와 백운산을, 여름에는 거문도·백도와 성불계곡 등 해상관광지를, 가을에는 송광사와 백운산 등 사찰 중심의 산악형 관광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관광지에 대해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개별 관광지의 편의시설 미흡으로 인하여 방문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어** : 지각, 이미지, 인지도, 선호도, 관광행태

## 1. 연구목적 및 방법

1940년대 이후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는 여가 시간 및 이동성의 증대로 인해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Millward, 1996, 102).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은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 또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한 지각(perception), 감지(sensation), 학습(learning)의 결과, 관광환경에 대한 상이한 이미지(image)가 형성되며, 이러한 상이한 이미지는 관광주체로 하여금 관광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리학에서 행해진 행태론적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행태주의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Simmon, 1957; Kates, 1962; Wolpert, 1964). 초기의 행태론적 연구는 산업입지나 거주지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환경인지나 이동행동 등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동분석에 있어서 행동과정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며(Basset and Short, 1989), 행동에 대한 인지적 관점 등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김송미, 1991).

개인의 인지적 차원이란 개인이 갖는 공간적 이미지 차원을 말한다. 이미지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 데, 이미지의 표시적 측면(designative aspects)과 평가적 측

\*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면(apprasive aspects)이다(Thrift, 1981). 전자는 개인의 가치체계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인지 지도나 인지거리 등의 연구(Cadwallader, 1975; Mackay, 1976; Sadalla and Staplin, 1980a, 1980b; MacEachren, 1980)가 해당된다. 후자는 개인의 가치체계를 포함하여, 장소에 대한 친밀감 혹은 정보 등에 의한 선호(preference)의 연구(Louviere, 1988; Harrison & Sarre, 1975)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객들의 인지 및 선호에 기초한 행태연구(Ferris, 1970; Witt, 1971; Field & O'Leary, 1973; Ditton & Johnsen, 1975; Driver & Knopf, 1977; Aldskogius, 1977; Perdue, 1987)들은 1960년대 행태지리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심상지도(mental map), 선호(preference), 관광태도(attitude)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관광지의 개발 및 편의시설의 확대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관광지의 개발계획에서 기초가 되는 연구주제이며, 관광지리학 분야의 학자들 및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연구분야이다(Glyptis, 1981).

지금까지 국내의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관광지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에 기초한 행태론적 연구는 70년대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관광지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행태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윤길진, 1988a, 1988b, 1990)가 대부분인 반면,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즉 잠재적 관광객과 관련된 행태분석은 오남삼(1991), 김재철·이정록·조승현(1991)의 연구를 제외하곤 연구의 축적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관광지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관광지리학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

한 주요 관광지에 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둘째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며, 셋째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관광지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에 기초한 지역주민의 관광행태적 속성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장차의 관광지 개발 계획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지역의 범위는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광양시, 순천시, 여천시, 여수시를 그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전남 동부지역 관광자원의 속성은 크게 백운산·조계산·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형의 내륙관광자원과 다도해의 해상관광자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광양시·순천시는 주로 산악형의 내륙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여천시·여수시는 해상관광자원으로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자원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여 광양시, 순천시, 여천시, 여수시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 조사에 관한 부분과 관광행태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1995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광양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 중에서 통계 분석에 유의한 650명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지도화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 2. 관광지의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

인간의 관광행태(tourism behavior)란 각종의 필요와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자극을 받고 충동을 느끼게 되어 구체적인 행위, 즉 관광지 방문으로 나타나는 인간행위의 과정을 의미한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그러므로 관광행태는 관광객의 성별, 소득, 교육수준,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변수들과 심리화적인 동기들로 구성된 push 요인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목적지의 특징인 pull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나타나

는 관광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지리학자들은 심상 지도(mental map)와 공간탐색모델 등을 발전시켜왔다. 즉 공간(space), 거리(distance), 관광지에 대한 지각(perception)은 관광자원 및 관광지 시설, 그리고 관광행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Smith, 1983, 73).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관광지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속성인 심리적 영향력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잠재적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는 개인의 역할과 가족영향, 사회계층, 문화와 하위문화, 준거집단 등이 있고, 인지적 속성인 심리적 변수에는 지각(perception), 학습(learning), 성격, 동기(motivation), 태도(attitude) 등이 있다. 특히 관광지에 대한 잠재적 관광객의 인지구조와 관광행태 간에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인지구조를 설명하는 심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인지구조와 관광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한편 관광목적지에 대해 잠재적 관광객들이 갖는 지각에 대한 연구는 실제환경(reality)에 관한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Smith, 1983). 지각(perception)이란 인간이 외부세계의 사물에 대해 감각기관을 통하여 탐지하고 해석하는 과정, 즉 대상과 객관적 사태를 감각에 의해 알게 되는 과정이다. 관광지에 대한 인간의 지각은 심리적인 순수한 지각이며, 여기에 관광지에 대한 경험의 영향이나 판단력의 작용이 가해진 구체적인 지각이 관광지에 대한 인지이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가지가 있는데 자극체인 자극요소와 관광객 자신의 관심, 요구, 기대, 성격, 동기 등의 인적요소가 그것이다. 따라서 인지의 구성은 관광지 자체가 주는 요소와 관광객 개인의 관광동기에 의한 실제 관광경험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상호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부연하면 지각을 통해 그려진 이미지의 구조는 다의적 복합적 개념이며, 매우 주관적이다. 비록 관념적 비가시적 실체이지만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의 역할과 기능은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과 행동을 유발한다

고 할 수 있다.(손대현, 1989). 따라서 자연경관의 매력요인과 관광객이 경험했던 서비스나 만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이미지가 지각 안에 형성되어 관광대상이나 목적지의 선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관광객의 인지는 관광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정 관광지에 대한 잠재적 관광객의 선호구조는 각각의 관광지 속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관광지의 속성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광지의 자연적·문화적 경관, 휴식·쇼핑·유흥·스포츠·숙박 등 편익시설 이용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 관광지의 접근도, 소요비용 등의 요소에 따라 선호가 달라진다. 특히 특정 관광지에 대한 잠재적 관광객의 선호구조는 장차 발생할 여행패턴 및 관광행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개발정책의 수립과 관광수요의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관광지에 대한 공간적 행동의 실천은 요구-욕구-동기-행동의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관광행태의 생성에 필요한 심리적 원동력을 관광욕구라 부르며, 관광행태를 이끄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관광동기라 부른다(차복제역, 1982). 관광욕구나 동기는 관광행동을 야기시키는 주 요인이지만 행동이 구체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대한 인지적 차원에서 비용, 시간, 정보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 관광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떤 관광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인지 수준에 따라 관광행태의 패턴도 달라진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관광행태의 공간적 구조와 패턴은 지각을 통한 인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평가는 관광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리고 특정 관광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및 선호를 갖게 되면 장차 발생할 관광행태 및 관광수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인지구조는 관광 마케팅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인지구조는 특정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공간적 행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의 선호도와 관광형태에 관한 연구

때문에 관광지리학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그림 1 참조).

최근 관광수요의 증대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관광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어느 곳이고, 주로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어떤 관광지인가 하는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관광지에 대한 인지 및 선호특성에 기초한 관광행태 분석이 필요하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서도 대부분의 관광활동이 자연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 자원이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자원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일 때 관광자원이 되며, 교통, 도로, 숙박시설 등의 개발조건과 결부되어 관광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전남의 동부지역은 천혜의 수려한 육해상의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의 주요 자연적 관광자원을 살펴 보면, 도서 관광지로는 오동도, 거문도·백도, 소록도, 거금도 등을 들 수 있고, 해수욕장은 내발 해수욕장, 나로도 해수욕장, 방죽포 해수욕장, 남열 해수욕장, 봉래 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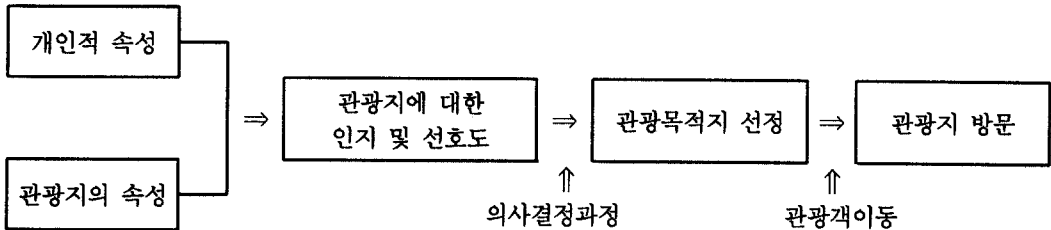


그림 1. 관광지의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계(자료: 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3. 전남 동부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지의 개관

1) 전남 동부지역의 주요 관광지

본 권역은 수려한 다도해의 해상경관을 가지고 있는 해상관광자원의 보고로서, 국립공원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인접한 구례에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고흥군 포두면 성두도가 199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도립공원으로서 순천시에 조계산 도립공원이 있다(그림 2 참조).

2) 전남 동부지역의 관광자원

(1) 자연적 관광자원

관광대상이 되는 자원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욕장, 대전 해수욕장 만성리 해수욕장 등이 있다. 산악 관광지는 백운산, 팔영산 등이 있으며, 사찰로는 흥국사, 선암사, 송광사, 능가사 등이 있다. 이 밖에 기타 관광지로 성불계곡, 향일암, 진남관, 무슬목, 낙안 민속촌, 고인돌 공원 등이 있다.

(2) 사회·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향토민속·문화행사를 들 수 있는 데, 동부지역에는 여수 진남제를 비롯하여 여천시의 사도 영등계 등 남도생활의 독특한 특색을 지닌 향토적인 민속자료와 민속문화행사가 많다. 문화적 관광자원이란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역사적·전통적 자원으로서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동부지역의 유물,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등 문화자원으로는 국보 3종, 보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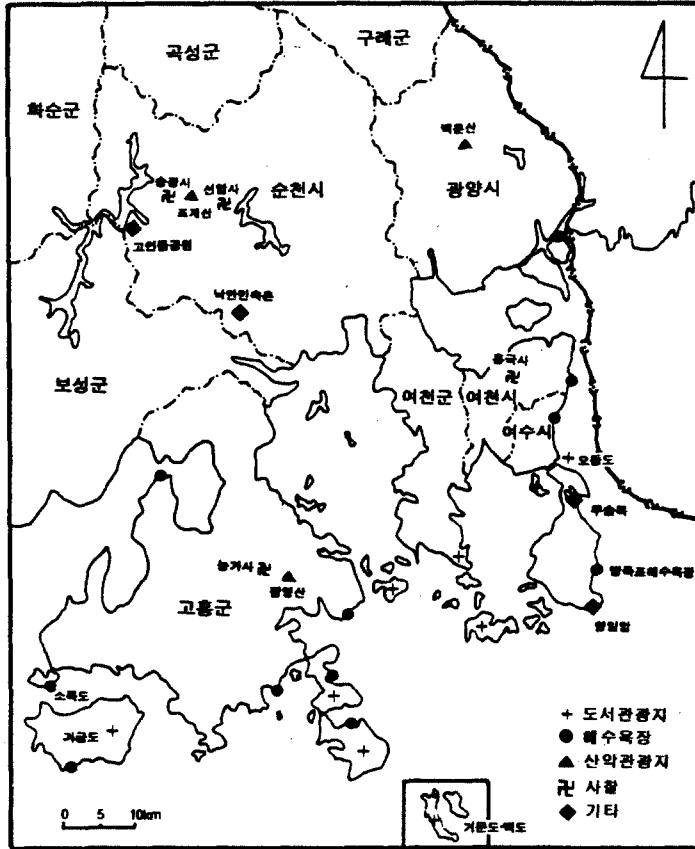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지역 주요 관광지의 분포

종, 사적 3종, 명승 3종, 무형문화재 1종, 민속자료 10종, 천연기념물 3종 등 총 50종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26종, 기념물 8종, 무형문화재 6종, 문화재자료 20종, 민속자료 4종 등 총 64종의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부지역에는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광양제철소 등의 산업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4.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인지적 특성

##### 1)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평가는 관광대상은

물론이고, 편의시설의 질이나 공간적 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통해서 그 관광지에 대해 느끼는 인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김재철 · 이정록 · 조승현, 1991).

전남 동부지역 주민이 지역내 관광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표 1), 전체 응답자의 84%정도가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우수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우수함에 비해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에 대해서는 47.2%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의 선호도와 관광형태에 관한 연구

편의시설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지역의 관광지 편의시설과의 비교에서는 61.4%가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의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지도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경관의 수려함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 반면, 관광지의 관광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광대상인 유인들의 가치는 비교적 높지만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이 행해지지 못하여 잠재적인 관광수요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관광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 분	관광지의 인지도	편의시설의 인지도	비교평가
종 다	43.9	14.4	5.4
보통이다	40.2	38.4	33.2
나쁘다	15.9	47.2	61.4
계	100.0	100.0	100.0

자료 : 설문조사에 의한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서, 성별에 따른 관광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좋다'가 각각 41.6%, 47.1%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좋다'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50세 이상의 노년층의 관광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다'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30~49세의 장년층은 '보통이다'가 1순위, 19세 미만~20세의 청년층은 '좋다'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 살펴 보면, 대졸에서는 '좋다'(50%)가, 고졸과 중졸, 그리고 국졸이하에서는 '보통이다'(4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전직업대에서 '좋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비율(60.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좋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각 평가별로 보면 '좋다'는

70만원 이상(49.9%)에서, '보통이다'는 100만원 미만(44.7%)에서, '나쁘다'는 90만원 미만(20.6%)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이 지역 일대 관광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에 차이없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평가에서, 성별로 보면 남자는 '나쁘다'(44.7%), 여자는 '보통이다'(43.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미만(75.0%)과 20~29세(42.9%)의 연령대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에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나쁘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별에서는 전문직(57.8%)과 경영관리직(47.1%)에서는 '나쁘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의 다른 직업별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소득별로 보면, '나쁘다'로 평가한 150만원 이상의 소득층(48.8%)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층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에 대한 인지도

본 권역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49.7%)와 '필요하다'(42.0%)가 전체의 91.7%를 차지하여 새로운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표 2 참조). 이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 유형 선호도는 해상경관 중심의 관광단지가 60.6%로 내륙의 산악경관 중심의 관광단지(39.4%)보다 높게 나타나 다수의 수려한 해상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본 권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상경관 중심의 관광단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본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지역내 대규모 해상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 지역은 우수한 해상경관을 바탕으로 남해안 최대의 해상관광지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 관광객들의 관광행태가 산악경관 중심의 관광행태에서 해상경관을 감상하고 해상관광지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관광행태로 변모되고 있

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개발필요성이 전혀 없다	계
비율	49.7	42.0	5.7	2.0	0.7	100

자료 : 설문조사.

표 3.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관광 관련사업체에 대한 평가	0.7	6.7	37.7	49.7	5.2	100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	0.7	6.8	52.4	33.9	6.3	

자료 : 설문조사.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해상공관단지개발의 시설물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휴양시설'이 25.2%로 가장 많았고, '위락시설'(22.6%), '스포츠 시설'(18.9%)순으로 레저·스포츠 중심의 선진국형 관광위락시설의 도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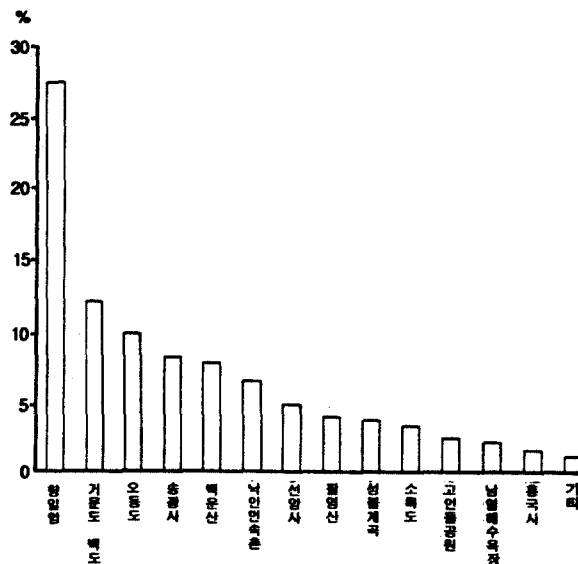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관광지의 방문선호도

##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의 선호도와 관광형태에 관한 연구

본 지역내에 있는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표 3), '불만족'(49.7%)과 '보통이다'(37.7%)가 높게 나타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권역내의 관광산업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편의시설의 부족'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이 너무 비싸다'(23.0%), '불친절한 서비스'(22.7%)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발이 요구된다(표 3 참조).

한편 본 지역내의 여행사 이용빈도 구조를 보면, '2~3회'(45.0%)와 '1회'(42.6%)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의 여행사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사 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관광프로그램이 빈약하다'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비가 비싸다'(22.2%), '서비스가 불친절하다'(21.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참신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와 관광형태

#### 1)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

지역내에 분포하는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어느 관광지를 가장 좋아하고 방문하고 싶어하는가'하는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내륙의 산악 및 사찰관광지보다는 해상의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돌산읍의 '향일암'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27%가 이 곳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순위는 '거문도·백도'(12.1%), 3순위는 '오동도'(9.9%), 4순위는 '송광사'(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따라서 이러한 선호도를 관광형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해상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거주지별 선호순위를 살펴보면, 여수, 여

천, 순천 지역 모두에서 '향일암'이 1위를 차지하였고, 광양시는 '백운산'이 1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주요 특성 중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24.9%)과 여성(30.7%) 모두 '향일암'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선호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50~59세(백운산:13.4%)를 제외한 전연령대가 '향일암'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별 모두에서 '향일암'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졸(31.7%)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처럼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한 여천군 돌산읍의 향일암은 돌산대교를 지나 금오산 기암절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암자로서, 수평선 일출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자연적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향일암의 높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으로는 잠재적 관광객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들 중 특히 관광지의 자연적 경관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2) 계절별 관광지의 선호도

관광지는 각각의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관광수요를 창출하며, 또한 관광지의 속성에 따라 계절별로 상이한 관광수요를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내에서의 관광객 유동은 계절에 따라 특정 관광지를 선호·방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양관광지는 해수욕 관광객에 의해 주로 하계에 관광객이 집중하는데 비해 산악관광지는 그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계절별 관광지의 선호도 및 관광형태의 조사·분석은 관광지 개발계획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지리학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관광지의 이용성 및 관광수요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절에 관광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계절별 관광지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지역의 전형적인 해상경



관 중심의 관광자원 특성상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의 3계절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계절별 관광지의 선호도 분석결과(그림4 참조), 봄에는 '오동도'(27.2%)가 가장 많았고, '백운산'(12.8%), '거문도·백도'(9.5%), '팔영산'(9.5%), '향일암'(9.3%), '선암사'(7.5%), '송광사'(6.5%), '홍국사'(4.7%), '낙안 민속촌'(3.8%), '소록도'(3.2%), '성불계곡'(2.0%) 등의 순으로 관광기간 거의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자원의 속성상 봄에는 거의 비슷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다양하게 분산됨을 알 수 있다.

여름에는 '거문도·백도'(19.2%), '성불계곡'(16.4%), '방죽포해수욕장'(14.2%), '나로도해수욕장'(13.4%), '소록도'(5.3%), '내발해수욕장'(4.0%), '대전해수욕장'(3.5%), '남열해수욕장·백운산·향일암'(3.3%), '오동도'(2.8%), '무슬목 유원지'(2.3%), '홍국사·선암사'(1.8%), '송광사'(1.5%),

'팔영산'(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해양지향적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백운산·팔영산 등 산악경관 중심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 여름철의 관광선호는 관광지의 속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을에는 '송광사'(23.5%), '백운산'(19.0%), '팔영산'(18.0%), '선암사'(12.3%), '향일암'(6.7%), '홍국사'(4.3%) 등의 순으로 산악경관을 보유한 관광지를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계절의 관광지 선호도 중에서 특정 관광지에 대해 집중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것이 가을철 선호구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계절별 선호관광지를 각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봄철의 경우 조사 지역 모두에서 '오동도'가 1위를 차지하였다. 거주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양시는 '오동도'에 이어 '백운산'이 2위를, '거문도·백도', '팔영산', '선암사', '송광사'가 각각 3위를 차지하였으며, 순천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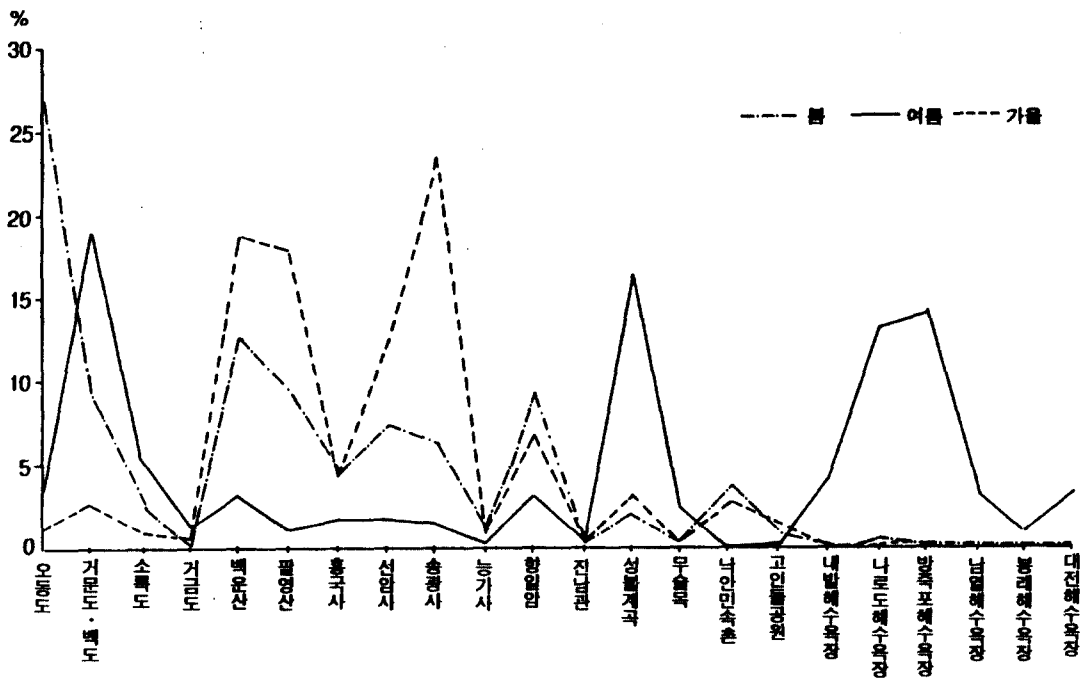


그림 4. 계절별 관광지의 선호도 순위

동도에 이어 '백운산', '향일암'이 2위를, '거문도·백도'가 3위를 차지하였다. 여천시는 '오동도'에 이어 '향일암'이 2위를, 팔영산이 3위를 차지하였고, 여수시는 '거문도·백도', '백운산'이 3위를 차지하였다

여름철의 경우 순천, 여천, 여수지역 모두에서 '거문도·백도'가 1위를, 광양시는 '성불계곡'이 1위를 차지하여 전남 동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광지 및 해양관광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계절(여름)의 특성상 계곡과 해안의 피서형 관광지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경우 광양과 여수는 '백운산'이, 순천과 여천은 '송광사'가 1위를 차지하여 이 시기의 전반적인 관광지 선호는 가을 단풍놀이 및 사찰 중심의 산악형 관광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3)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문빈도 및 관광형태

지역주민의 관광행태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문빈도를 조사하였다. 지역내 주요 관광지 방문빈도를 살펴보면(그림 5), 전체 응답자의 40.7%가 '오동도'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오동도'가 방문빈도에 있어서 1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선암사'(15.9%), '송광사'(9.0%), '홍국사'(7.4%), '향일암'(6.9%), '백운산'(6.2%), '방죽포 해수욕장'(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지역내 관광자원의 특성인 해양형 관광지의 방문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방죽포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이 지역의 주요 해양형 관광지에 대한 방문빈도가 낮아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해양형의 관광지에 대한 방문빈도가 낮은 것은 지역내에 분포하는 해양관광지의 관광편의시설 부재, 관광루트의 미설정, 교통편의시설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본 연구 지역주민의 거주지별로 관광지 방문빈도를 살펴 보면, 순천시를 제외한 광양, 여수, 여천지역 모두 여수시 '오동도'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오동도의 높은 지명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순위별 관광지를 각 거주지별로 살펴 보면, 광양은 '오동'

도'에 이어 '백운산'이 2위를 '선암사'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여수시는 '오동도'에 이어 '향일암'이 2위, '홍국사'가 3위를 차지하였다. 여천시도 역시 '오동도'에 이어 '홍국사'가 2위, '선암사'가 3위를 차지하였고, 순천시는 다수의 문화재 및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선암사'가 1위를 차지하였고, '오동도'가 2위, '송광사'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그림 6, 7, 8, 9 참조).

다음으로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에 따른 관광지 방문빈도에서,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39.0%)과 여성(43.3%) 모두 '오동도'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인 관광빈도와 거의 유사하게 19세 미만에서 60세 이상까지의 전연령대에서 '오동도'가 1위로 나타나 '오동도'의 높은 방문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에서도 역시 국졸이하(29.4%:송광사)를 제외하고 모든 학력별에서도 '오동도'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관광지 중에서 '오동도'에 대한 높은 방문빈도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오동도가 과거 1970년대 후반까지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 및 관광자원을 대변했던 대표적인 관광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이 지역 일대가 오동도로 통칭되던 지역관광이미지와 관광지명도가 관광지 방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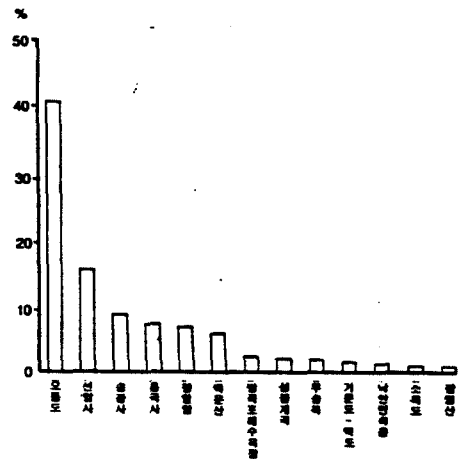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관광지의 방문빈도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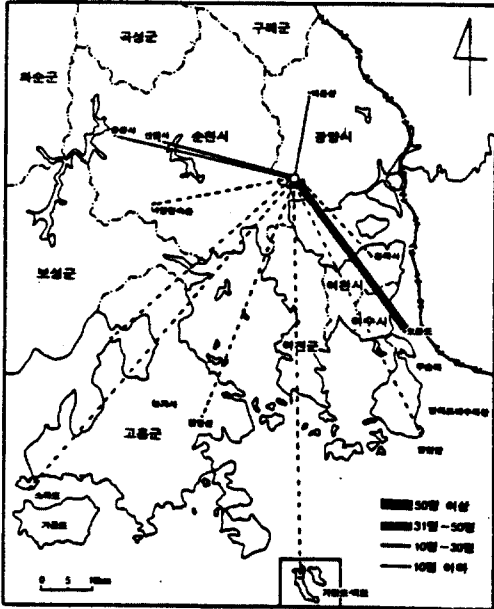


그림 6. 관광지의 거주지별 방문빈도(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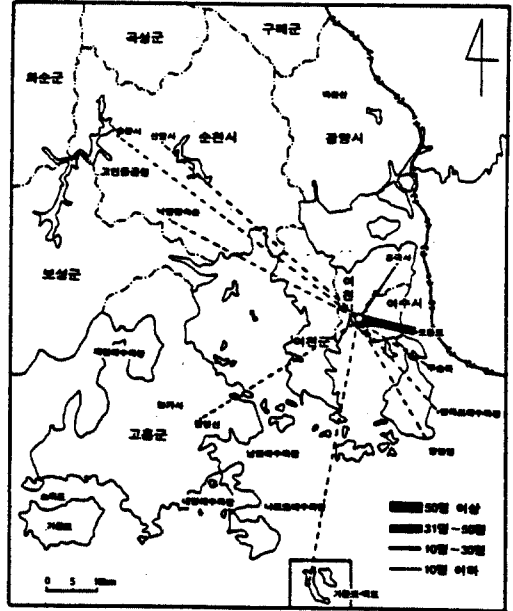


그림 7. 관광지의 거주지별 방문빈도(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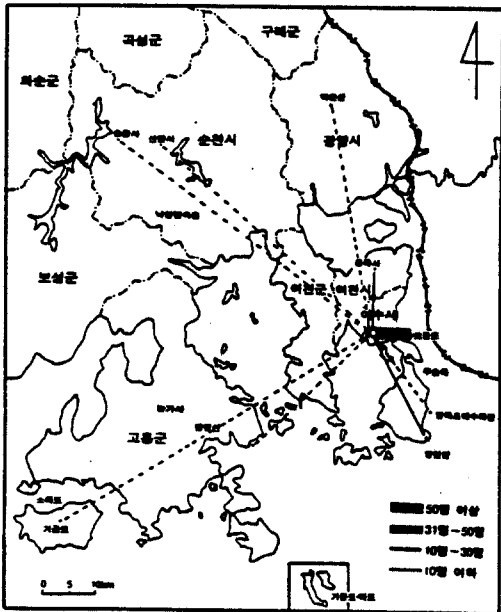


그림 8. 관광지의 거주지별 방문빈도(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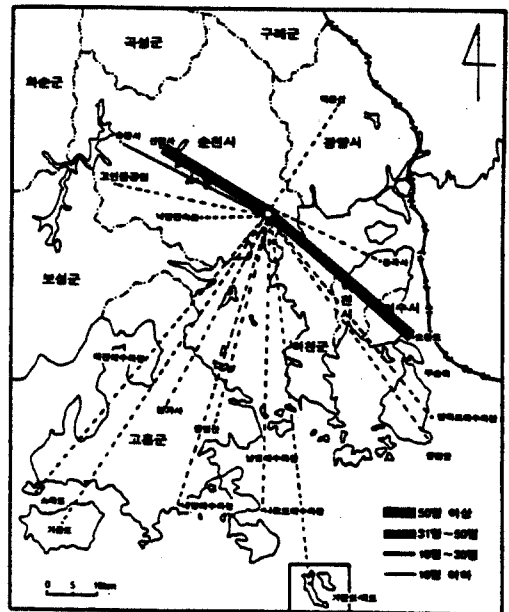


그림 9. 관광지의 거주지별 방문빈도(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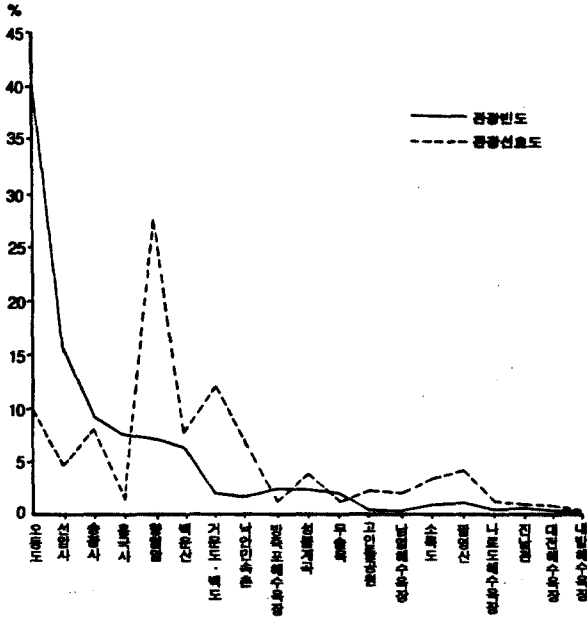


그림 10.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와 관광빈도와의 관계

이러한 관광지 방문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항구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여수시 오동도 일대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선상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상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안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소형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상유원지가 조성되면 전남 동부지역에 있는 여수 반도의 관광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문화를 홍보하는 다양한 관광이벤트의 장소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관광·위락공간을 제공하면서 오동도로 알려진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행태의 경우 거주지와 거리보다는 관광지의 지명도가 관광지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오동도'와 '선암사', '송광사'가 전체의 65.8%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향일암과 거문도·백도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인 관광지 방문행위로 연결되지 않아 관광행태에서는 낮은 관광빈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특히 여천 향일암의 경우, 관광객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자연적 경관요소가 뛰어나 높은 선호율을 나타낸 반면, 휴식·쇼핑·유희·스포츠·숙박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선호가 선호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관광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물리적 자원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관광행동과 선호도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지의 경우, 관련된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광수요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6.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국민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관광행태는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 또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매우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증대된 관광수요 및 복잡·다양화된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에 선행해서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주변 관광지에 관한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관광지리학적 측면에서 살펴 본 시론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들은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우수함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우수함에 비해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광편의시설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향일암, 거문도·백도, 오동도로 분석되었으며, 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관광지는 오동도로 방문 빈도에 있어서 1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선암사, 송광사, 흥국사, 향일암, 백운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지역내 관광자원의 특성인 해양형 관광지의 방문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계절별 관광지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봄에는 오동도와 백운산을 높게 선호한 반면, 여름에는 거문도·백도와 성불계곡 등 해상관광지를 가을에는 송광사와 백운산 등 사찰 중심의 산악형 관광지를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행태의 경우 거주지와외의 거리보다는 관광지의 지명도가 관광지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오동도'와 '선암사', '송광사'가 전체의 65.8%를 차지하였다.

본 지역은 관광개발에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각종 자원은 풍부하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거나 단순 행락중심의 대상으로 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광의 효과가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관광행정 및 지원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관광객 유치에 위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대 과제는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나아가 관광성향을 고려한 관광공간 이미지의 개발, 욕구충족형의 관광위탁시설의 확충, 지역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아이디어, 관광기반시설의 단계적 확충 등 물리적 시설과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광지의 인지도와 관광행태의 특성을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광지의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관광객의 관광동기, 공간행태, 관광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하려고 한다.

## 文 獻

- 권용우·정태홍·김선희, 1995, **관광과 여가**, 한울.
- 김성기, 1988, **관광자원론**, 녹원출판사.
- 김송미, 1991, 소비자의 공간선택에 관한 연구동향, **지리학**, 26(2), 182-201.
- 김재철·이정록·조승현, 1991, **광주·전남지역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 및 관광행태 조사분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 263-293.
- 손대현, 1992, **관광마케팅론**, 일신사.
- 오남삼, 1990, **관광지 주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길진, 1988, 관광지의 선호와 인지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리학**, 37, 87-98.
- 윤길진, 1988, 척도구성법에 의한 국립공원의 인지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집, 27, 건국대학교 대학원, 93-105.
- 윤길진, 1990, 국립공원 관광지에 대한 인지와 선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장안지리**, 5(3), 1-168.
- Aldskogius, H., 1977,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Swedish case study of recreational behavior and environmental cognition, **Economic Geography**, 53(2), 163-180.
- Basset K. and Short, J., 1989, Development and diversity in urban geography, Greory D. and R. Walford,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Macmillan, 180.
- Cadwallader, M., 1975, A Behavioral Model of Consumer Spatial Decision Making, **Economic Geography**, 51, 339-349.

- Cooper, C. P. 1981,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Tourist Behavior, *Regional Studies*, 15(5), 356.
- David R. Chase and Neil H. Cheek, Jr, 1979, Activity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Conclusions from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 92-101.
- Daniel R. Fesemaier, Michael F. Goodchild, and Stanley R. Lieber, 1980, Correlates of Day-Hiking Travel: The Effects of Aggreg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2), 213-228.
- Ditton R.B., Goodale, T.L. and Johnsen, P.K., 1975, A cluster of analysis of activity, frequency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o identify water-base recreation typ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282-295.
- Driver, B.L. and Knopf, R.C., 1977, Personality, outdoor recreation and expected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Behaviour*, 9, 169-193.
- Ferris, A.L., 1970, The social and personalty correlates of outdoor recre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8(9), 46-55.
- Field, D.R. and O'leary, 1973, Social groups as a basis for assessing participation in selected water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 16-25.
- Gold, R., 1980,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4.
- Holahar C. J., 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Random House, Inc, 91.
- Hugh Millward, 1996, Countryside Recreational Access in the United States: A Statistical Comparison of Rural Districts, *Annals of the A.A.G.* 86(1), 102-103.
- Joseph Levy, 1979, A Paradigm for Conceptualizing Leisure Behavior : Towards a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 48-60.
- Kates, R.W., 1962, Hazard and choice perception in flood plain manage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78.
- Louviere, J., 1988, An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conjoint based choice simulation system with an application to forecating future retire - ment destination choice, in *Behavioral Modeling in Geography and Planning* (Golledge, R. G & H. Timmermans, eds.), Croom Helm, London, 325-355.
- Lynch, K., 1979, *The Image of the City*, Mass : MIT Press
- MacEachren, A. M., 1980, Travel time as the basis of cognitive distanc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2, 30-36.
- Mackay, D.B., 1976, The effect of spatial stimuli on the estimation of cognitive maps, *Geographical Analysis*, 8, 439-452.
- Perdue, R.R., Long, P.T & Allen, L., 1987, Rural resident tourism perceptions and attitud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167-180.
- Peter Clough & John Shepherd, Ronald Maughan, 1989,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Recreational Runn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4), 297-309.
- Sadalla, E. K. and Staplin, L. J., 1980a, The perception of travered distance, *Environment and Behavior*, 12, 183-193.

- Simmon, H.A., 1957, *Models of Man*, John Wilry, London.
- Stephen L.J. Smith, 1983, *Recreation Geography*, Longman.
- Susan A. Glyptis, 1981, Leisure Life-Style, *Regional Studies*, 15(5), 312.
- Thrift, N., 1981, Behavioral geography, wrigley, N. and R.J. Bennett, eds., *Quantitative Geography*, Routledge Kegan Paul, 352-265.
- Wolpert, J., 1964, The decision process in spatial context, *Annals of the A.A.G.*, 54, 537-558.

## Preference and Tourism Behaviors of the Tourists to the Travel-Destinations in the Eastern Area of Chonnam Province

Chu, Myung-Hee\*  
Lee, Joeng-Rock\*\*  
Kim, Jae-Chul\*\*\*

### Summary

Tourism is multi-faceted phenomenon which involves movement to stay in destinations outside the normal place of residence. Thus, tourism is a composite phenomenon which incorporates the diversity of variables and relationships to be found in the tourist travel process.

Tourism-behaviors are of major economic and social significance. With the growth of mass-tourism, the government departments of tourism is to provide many tourist facilities, to develop travel destination and tourism resources. At same time, the growth of mass-tourism has prompted perceptive travellers to raise many questions concerning the many travel destination and the tourism resources of encouraging further tourism demand.

Most of tourism have a mental in their minds about various objects. This allowed him to choose tourism destination as a important rules. In tourism geography, behavioral approach to wildness, tourism resources and places has risen since 1960's.

The tourist profile can be viewed under two major categories: the tourist social-econom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Particular, the motivations, attitude, need, values and preference of travel destinations are of crucial importance in contributing to their desion-making process. In this view, this paper is emprical study investigated travel pattern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tourists and potential tourist in East Chon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spatial preference and tourism behavior of travel destinations. For this study, we are undertaken the questionnaire method employed by recreation geographers in order to collect research data for the East Chonnam-citizens functioned as a major tourist demand.

The East Chonnam Province have many tourist-places including natioal park, provincial park, and local tourist-places. Thus, citizen of the East Chonnam evaluate many tourist-places very high, but evaluate the facilities of tourist place

---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wangju and Chonnam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ery low. The high ranks of preferences to travel destinations among tourist-places are Hyangilam, Geomoon island, Odongis land, Songkwang temple.

The major travel destinations occurred the temporary travel trip are Odong island, Sunam temple, Songkwang temple, Heungkook temple, Hyangilam which are the type of mountainous in located inl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reference and tourism behavior of travel trip for the travel destinations does not correlate each other.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degree of seasonal preferences presented spatial differen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ourist-places. The typical travel destination are divided into seasons : Odong island, Mt. Backwoon, Goemoon island of spring, Goemoon island, Sungbul valley, Banggukpo beach of summer, Songkwang temple, Mt. Palyoung of fall.

The future of tourism will be rapidly grow with increase of personal mobility and leisure time, chang of tourism behavior. Thus, it is imperative that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tour-root, facilities of tourist-places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ourism demand.

**Key words:** perception, image, cognition, preferenc, tourism behavior.